

2017. 5. 16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7년 5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

주거재생과장	국 승 열	2133-7155
주거재생계획팀장	김 승 훈	2133-7169
담 당 자	소 석 영	2133-717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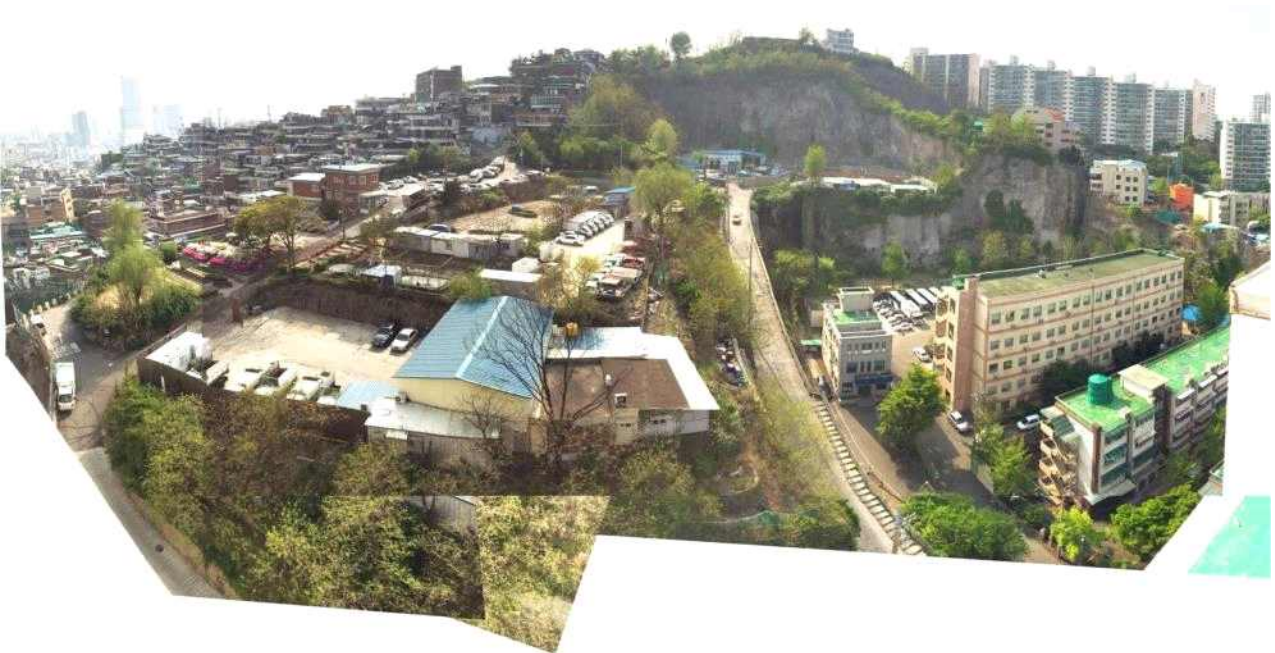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4매

## 창신송인 채석장 새로운 명소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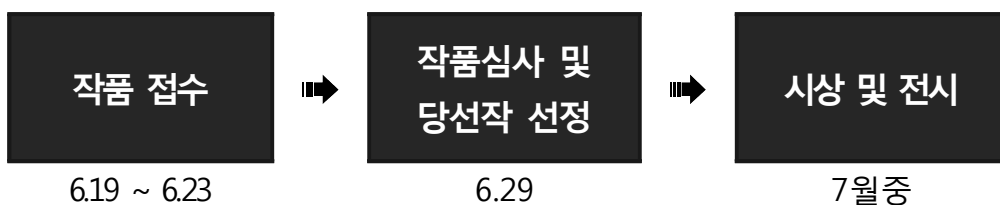
- 누구나 참여가능한 시민아이디어부문과 대학(원)생 대상 공간디자인 부문으로 진행
- 선정작 중 우수 아이디어는 대상지의 명소화사업 추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활용
- 市, “버려진 채석장을 지역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 방안 아이디어 발굴” 기대

-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채석장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‘창신송인 채석장일대 명소화 시민·학생 아이디어공모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공모는 버려진 창신동 채석장 재생에 대한 시민 및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.
- 창신송인 지역은 2010년 10월 뉴타운이 해제되고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한창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.

- 창신승인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에 구)조선총독부, 경성역 등 석조건축물의 석재를 채취하던 채석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, 이번에 공모하는 대상지는 종로구 창신동 23-315번지 일대 약 3만4천㎡ 지역으로 현재는 방치된 채 자원회수시설, 청소차량차고지, 무허가주택, 경찰기동대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다. 채석장 절개지는 창신승인 지역의 독특한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.



- 이번 공모는 ‘시민아이디어 부문’과 ‘공간디자인 부문’으로 진행하며 ‘시민아이디어 부문’은 참가 제한이 없으며, ‘공간디자인 부문’은 (전문)대학(원) 재학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6월23일까지 진행된다.



- 서울시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교수 및 전문가, 시민 및 공무원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

논의와 토론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.

- 응모자들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버려진 채석장을 시민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  - 모든 공모 참가자는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 제안, 채석장 절개지 벽면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, 대상지의 특성과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시설물 용도,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아이디어 작품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아울러, 공간디자인부문 참여자는 급경사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운송수단(모노레일, 경사엘리베이터 등) 도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작품 설명자료와 함께 사업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수준의 도면이 포함된 패널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- 총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'17. 7월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며, 제출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향후 대상지의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.

구 분	공모부문				표창 훈격
	시민 아이디어		공간디자인		
	작품수	시상금	작품수	시상금	
계	10점	280만원	10점	1,320만원	
최우수상	1점	100만원	1점	500만원	서울시장 표창
우 수 상	2점	50만원	2점	200만원	
장 려 상	3점	20만원	3점	100만원	
입 선	4점	5만원	4점	30만원	

※ 응모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될 수 있음

-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‘내 손안에 서울’ 홈페이지(<http://mediahub.seoul.go.kr>) 공모전 코너, 창신송인 도시재생홈페이지(<http://csseoul.com>)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(<https://uri.seoul.go.kr>)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공모전 일정 및 수상작 선정결과 등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.
  
- 류훈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“이번 공모를 통하여 버려진 창신송인 채석장에 다양한 문화예술적 활동과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방안에 대해 시민·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